

## 제주문학을 위한 제언

김 홍 철(제주일보 편집부국장)

### 1. 머리말

제주문학의 전망을 감히 이야기할 처지는 못되지만 오랫동안 신문지상에 제주작가들의 신간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제주문학의 위상이나 역할, 과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비평가 혹은 작가들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고민해왔던 터, 이 자리에서는 잠깐 물러나 문학 외적인 것들에 대해 제언을 몇가지 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문학을 말할 때 제주문인협회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퍼내는 ‘제주문학’과 제주작가회의의 계간 ‘제주작가’에 수록된 작품들이 제주문학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텍스트다.

물론 개별적인 동인지와 개인 작품집이 있지만 현재의 문학을 조망할 수 있는 종합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최근 작품들을 두루두루 접해볼 수 있는 것도 이유다.

현재 제주에서 발간되고 있는 이 두 단체의 문학지는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 제주문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 단체의 문학지를 받아보며 생긴 일단

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각 단체 회장의 발간 소회를 밝히는 책머리글에 주목하는 것이다.

길어야 두쪽 분량의 짧은 글이지만 행간을 통해 제주문학의 고민과 과제를 함께 읽을 수 있다.

오늘 이 지면은 그동안 접해 오던 제주문인들의 문학 산실인 문학지에서 제기된 몇가지 향방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 2. 지역문학인 지원

2007년 현재 3대 문인단체인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펜클럽에 등록된 인원은 모두 1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중복 가입 회원을 빼더라도 우리나라의 문인 수는 대략 1만 명 내외다. 매년 1000여 명의 문인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다.

제주의 경우도 1960년대 5명, 1970년대 11명, 1980년대 28명, 1990년대 130명이 등단해 1999년까지 180여 명의 문인들이 활동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등단 문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7년 현재 약 3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강용준 ‘문학인의 자기성찰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서 인용)

문인 수가 늘었다고 그들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

문자문화의 기반이 일정 부분 디지털문화로 이행하고 있지만 꾸준히 전통적인 문학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작가들에게 맥 빠지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문예진흥기금에서 문학부문 지원금은 모두 25건에 9500만원이 집행됐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시(800만원), 시조(900만원), 수필(2000만원), 동화(1100만원), 희곡(600만원), 소설(600만원), 종합(3500만원)이며 건수로는 25건이다.

당초 지원신청액 68건 3억2165만원에 비하면 30%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물론 문인들의 신청한 금액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더라도 문예진흥기금의 확대 등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문화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문화실태조사(2006년 기준)에서 문학과 미술 사진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63%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월평균 수입이 아예 없거나 1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무용, 영화, 국악, 대중예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문화예술인이라도 그 장르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대변하는 통계다.

물론 우리에게 문학 지원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고는 있지만 2005년 10월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지원정책 ‘문학 회생(나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학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우수 문학도서 지원사업과 문예지 구입 배포, 작가들에게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에 대한 원고료 지원사업, 문학나눔콘서트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혜택이 제주에서는

일부 문인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이 남지만 문학의 질적 수준을 담보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인 스스로 자기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숙제도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학인 지원 강화, 문학 메세나 운동의 확산 등 외부에서의 수혈과 함께 문학단체의 자구책 마련 등도 시급한 선결과제로 대두된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하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쓸 경우 매달 최고 200만원씩 지원하며 문학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같은 형태의 지원책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소한 전업문인에게는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서 끌어내어 사회적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생계와 창작환경을 마련해 주는 제도적 지원도 절실한 시점이다.

### 3. 문학 행사

독자들은 문학 행사로 문학을 향유한다.

현재 제주에는 특정 문학단체와 동인을 불문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문학행사들이 열린다.

전국시인축제, 여름 문학 창작교실, 찾아가는 문학교실, 장애인문학강좌, 북 페스티벌, 전도문학백일장, 문학 세미나, 시 낭송회, 4·3문학의 밤, 4·3문학 심포지엄, 작가와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시화전 등등.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문학 행사외에도 각 주관단체별로 새로운 틀을 가지고 복합적인 행사방식으로 이행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문학제 안에서 음악 공연이나 그림, 혹은 여타 장르를 도입해 문화 향유층의 지변화 대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주의 문화

그러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해 주최하고 있는 문학행사를 살펴보면 문학행사가 지향할 바를 시사해 준다.

실제로 ‘문학의 향기-토요일의 문학이야기’ (원주 토지문화재단), ‘만해문학 아카데미’ (백담사 만해마을.강원민방), ‘문예아카데미 시창교실’ (충북 민예총), ‘김유정문학캠프’ (김유정문학촌), ‘동리.목월문학제’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영랑문학축제’ (전남 강진군) 등은 지역문학축제로 문화상품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학행사가 꾸준히 개발되었으면 한다.

결국 지역문학의 지향할 방향도 우리 문학의 존재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이를 활용한 문학상품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독자만이 아닌 도민, 관광객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문학행사로 나아갈 때다.

### 4. 제주문학관 건립

자꾸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문학의 장은 어디서 마련돼야 하는가.

혹자는 제주의 천혜 자연과 소극장을 비롯한 무대, 강의실 등을 얘기하지만 문학관을 빼놓을 수 없다.

문학이라는 고유한 장르를 담보하기 위해 제주문학관은 필연적이다. 이미 몇해전부터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가 공동으로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돌리기에는 제주문학관에 거는 제주문인들의 관심 또한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다.

문학관은 그 지역을 대변하는 문학 공간이

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가사문학 하나만 가지고 지난 2000년 총사업비 83억원을 들여 ‘가사문학관’을 개관했다. 개관 후 가사문학관은 조선중기 우리 국문학사에서 주옥같은 시인묵객들의 가사문학과 호남 사림의 문화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여기다 충북 옥천군은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0억 원을 들여 ‘정지용문학관’을 개관했고, 부산에는 국내 유일의 ‘추리문학관’이 있다.

이러한 문학관과 함께 전국에는 한국현대문학관, 만해기념관, 토지문학관, 채만식문학관, 박화성문학관 등 크고 작은 문학관이 40여 개에 이른다.

제주에는 6.25 피난문인을 비롯해 작고한 작가, 현역 중진 작가, 제주출신 재일동포 작가 등 다른 지역보다 역량있는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좋은 문학 작품이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듯 그 거울을 담는 것은 문학관이다.

문학이 언어라면 문학관은 그 언어의 집이다.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한 제주문학인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촉구한다.

### 5. 지역문학인으로서의 역할

지난해 12월 제주에서는 문학을 통한 제주의 미래를 살펴보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주문인협회가 주최한 ‘제주문학, 제주문학인, 제주문학단체는 제주의 미래인가’를 주제로 마련된 도민 대토론회.

도민 대토론회는 “외형적으로 비대해진 문학단체에 반해서 단체의 내면인 작품의 질적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 리더로서 문학단

체 모습이 도민들에게 전혀 비춰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선배들이 다져온 처절한 작가적 정신은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강중훈 회장)는 반성아래 제주문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오성찬씨(소설가)는 현재 제주문학에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로 문학작품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으로는 향상되지 못한 점, 프로의식 결여, 열악한 도서시장 등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이어 제1주제에서 강문규씨(한라일보 논설실장)는 제주문학의 외적 성장과 비교할 때 문학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제주사회 속의 문단의 역할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인과 문단의 자국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그는 문인과 문학단체 스스로의 분발과 인터넷 문화를 활용한 제주문학과 함께 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했다.

제2주제에서 강용준씨(희곡작가)는 “제주 문화는 여성창조주신화, 전설, 민담 등 구전

문학 뿐만 아니라 이를 담아낸 제주어 또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 “이 때문에 문인들은 제주어를 통해 제주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을 작품에 담아 제주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대에 맞춰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작, 활용해 인터넷과 영상세대들에 접근해 문인들의 작품을 읽도록 해야하고 시대적 아젠다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주제에서 나기철씨(시인)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제주는 그 지리적 여건으로 하여 오히려 더욱 능률적이고 안온한 창작의 공간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주문학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본토의 문학과는 다른 변별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거대담론을 논하기기에 앞서 지역문학의 위상을 살피고 문학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제주문학의 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문학인 스스로의 고민은 깊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문인과 도민들은 문학단체가 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이들 단체가 각각 자신의 특색을 살리면서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자세로 나아갈 것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대토론회의 의미는 컸다.

나아가 이러한 반성아래 지역사회에서의 문학인의 역할과 책임있는 작가정신으로 제주문학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시적 다짐은 제주지역문학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것임은 분명하다.

### 6. 마치며

비단 문학의 위기는 제주문학만이 아니다.



➔ 행사에 참석한 도내외 문학인들

## 제주의 문화

사실 문학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문인 스스로라는 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중앙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학지만 하더라도 자체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작품을 게재한다거나 신인상을 남발하는 것 등은 비난이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가 주도하는 문화 현상은 전통적인 문학 독자의 이탈은 물론 신세대독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문학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부인하기에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러나 위기가 곧 희망이라는 말이 있듯 제

주문학도 과거의 영광을 위해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서 대토론회에서 문인들이 스스로 성찰하며 제주문학의 길을 찾았듯이 이제는 반성을 토대로 행동하는 일만 남았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유관단체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제주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문학 외적인 힘이 보태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문인 스스로 수준 높은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한다면 현실 비판과 전망을 제시하며 문화의 최첨병임을 자임했던 제주문학의 위상 찾기도 멀지 않을 것이다.